

투데이 칼럼

제3의 파워는 '언력' 이다

현대의 창조시대에는 언력(言力)이 세계를 지배한다. 인류 문명의 파워가 군사력에서 경제력으로, 경제력에서 언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 양 옥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그러므로 현대는 말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이다. 가정에서도 가족간의 대화, 직장에서도 동료와의 대화, 시민과 행정인들과의 대화, 조직원과 지도자들과 대화 등 우리는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면서 효과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이미 설득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준비했는가에 의해 기본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준비된 자만 무서운 자가 없기 때문이다.

과감한 결단력과 승부수가 설득의 성공을 높이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 다섯째, 신뢰를 줄 수 있는 능력으로 설득은 일반적인 이익이 아니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기에 필요한 능력이다.

게 소중한 것은 타인에게도 소중하다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소중한 진심바이너스를 심을 수만 있다면 설득은 보이지 않는 성공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이다.

독자제언

화물차 적재함 승차행위 '위험천만'

며칠 전 아침 출근길 사고 예방을 위한 러시아워 근무 중 화물차가 적재함에 젊은 사람들 열댓 명을 태우고 지나가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화물차 적재함은 물건을 싣는 공간으로 사람을 태우면 안되며, 이러한 탑승행위 시 안전띠 등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 조그만 충격에도 뒤편이나 대행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미·중 무역협상 끝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대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류허 중국 부총리가 지난 31일 상하이 무역협상장인 시자오컨퍼런스센터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설

인구 감소 절벽 고민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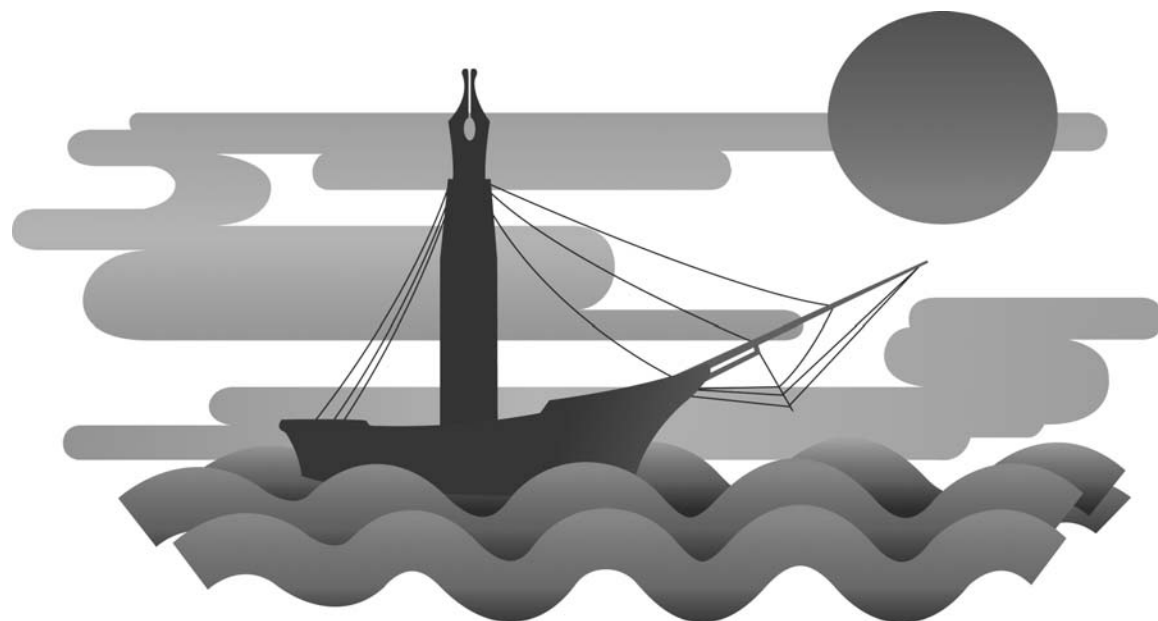
전북도는 인구 감소 절벽을 고민해야 한다. 통계청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인구 동향을 보고 했는데 지난해보다 문제가 심각하다.

정말이지 이대로는 지역의 앞날이 어둡다. 저출산의 고착화 때문에 데드 크로스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이다.

전주 구도심 활성화 사업 속도 내야

전주시에 물어볼 것이 있다. 구도심 활성화 사업이 어찌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구도청사 공터에 전라 감영 건물물을 짓는 등 애를 쓰고 있지만 그밖의 구역들은 변화가 미미하니 하는 말이다.

것인지 많이 아쉽다. 전주시는 구도심 활성화를 여러 차례 공표했으므로 박력있게 속도를 내야 한다. 방침을 호기있게 밝혔으면 일의 추진도 그래야 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